

제7기 대학평의원회 제3회 회의록

- 일 시 : 2019. 6. 13.(목) 17:30 ~ 18:30
- 장 소 : 대학본관 3층 소회의실
- 참석자 : 김종훈, 서은혜, 이희중, 이재설, 이용노, 전봉권, 김현수
- 불참자 : 강홍구, 최진희, 홍용, 유창희

※ 회의안건

-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김종훈 의장 기도)

의장: 간사께서 성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재적위원 11명 중에 7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습니다.

의장: 성원이 되었기에 대학평의원회 제3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전차 회의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차회의록 보고)

의장: 그럼 오늘의 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입니다. 기획처장께서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획처장: (교육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경과사항 설명)

의장: 질문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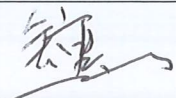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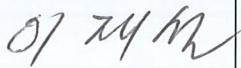
안건: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의장: 그러면, 오늘 회의 안건 관련하여 규정입안서의 내용을 보며 안내드리겠습니다.

(규정입안서 및 전주대학교 학칙 신규조문대비표 안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다른 대학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학과 신입학의 모집 결과가 별로 좋지 않고, 오히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모집할 수 있었던 학

간서명	김종훈		서은혜		이재설	
-----	-----	---	-----	--	-----	---

생들을 모집하지 못한 결과를 낳아 되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대학은 본 사업을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상, 기획처에서는 다른 대학의 성공 및 실패사례를 참고하셔서, 처음에 추진하면서 예상했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기획처장께서는 혹시 사례조사를 해보신 바 있으십니까?

기획처장: 000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려움을 겪는 사례의 대학들은 전남소재 대학들입니다. 입학 최종 모집결과는 8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및 경기도 인근 소재 대학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입학정원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전남 소재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입학 수요자들이 원하는 학과와 모집학과 간에 다소 괴리가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번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입시 현장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를 도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교 선생님들을 만나며 현장의 수요 조사를 하고, 학과의 수업 내용 등 핵심적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미래융합대학이 신설되면 이에 따른 교수 초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처장: 우선 전담교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설 대학의 학장은 기존 교수님들 중에서 모실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총 11분의 전담교원을 모실 계획입니다. 기존 단과대학에서 지원 희망자를 받을 계획이며, 그에 따라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의 규모는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장: 기획처장께서는 기존 단과대학에서 몇 분의 교수님들이 지원하실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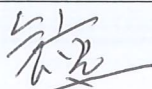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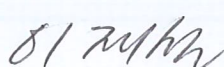
기획처장: 현재로서는 지원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모집단위 입학학과 내에서 중점 분야가 정해지면,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교수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장: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의문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전주대학교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를 다시 한 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안내)

그러면, 학칙 개정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학과별 인원 조정표를 보면, 게임콘텐츠학과에서 7명을 감축하였는데, 해당 학과

간서명	김중훈		서은혜		이재설	
-----	-----	---	-----	--	-----	---

와는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인가요?

기획처장: 참고로, 전주대학교는 하위 10%인 6개학과를 “관리정원제”로 정하여, 추가적인 정원이 필요하게 되면, 해당 관리정원제 대상 학과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과거 경험을 통해 보면, 소위 신설학과는 학생을 모집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생 모집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처장: 참고로, “스마트팜” 과 같이 새로운 분야는 현장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일례로 전북 장학사들이 특성화고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는데, 해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외국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언어 문제가 넘어야 할 큰 산이긴 하지요. 결국, 현장의 수요가 있는 새로운 분야와, 언어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면 새로운 활력과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애써주시는 기획처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지금까지 교수 채용 등에 대한 기획처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편, 미래융합대학을 신설하게 되면 사무실 공간 및 행정인력 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처장: 공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의 수업은 주로 야간과 주말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공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인력에 관해서는 총무처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인력의 규모는 행정직원 2명, 평생교육사 1명, 조교 2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격수업의 비율을 40%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수업의 시간대는 주로 평일 야간과 주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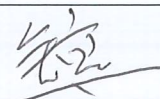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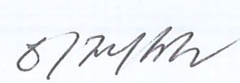
의장: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의장: 그렇다면, 본 회의 안건인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에 대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동의합니다.

7: 재청합니다.

간서명	김종훈		서은혜		이재설	
-----	-----	---	-----	--	-----	---

의장: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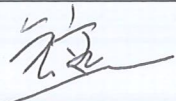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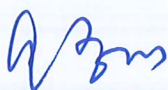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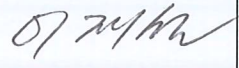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간서명 의원이신 홍용 의원님께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신 관계로, 간서명 의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네, 그럼 홍용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은혜 의원님께서 간서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대학평의원회 제3회 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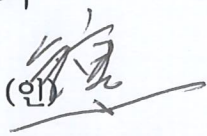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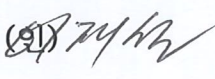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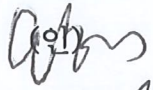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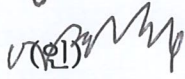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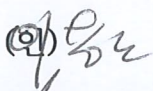

(다음 페이지 서명을 위하여 이하 여백)

간서명	김종훈		서은혜		이재설	
-----	-----	---	-----	--	-----	---

2019. 6. 13.

위의 사실을 확인함.

전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 장	김 종 훈	(인) 
부 의 장	이 재 설	(인) 
의 원	서 은 혜	(인) 
의 원	이 희 중	(인) 
의 원	강 흥 구	(인)
의 원	홍 용	(인)
의 원	최 진 희	(인)
의 원	이 용 노	(인) 
의 원	김 현 수	(인) 
의 원	유 창 희	(인)
의 원	전 봉 권	(인) 